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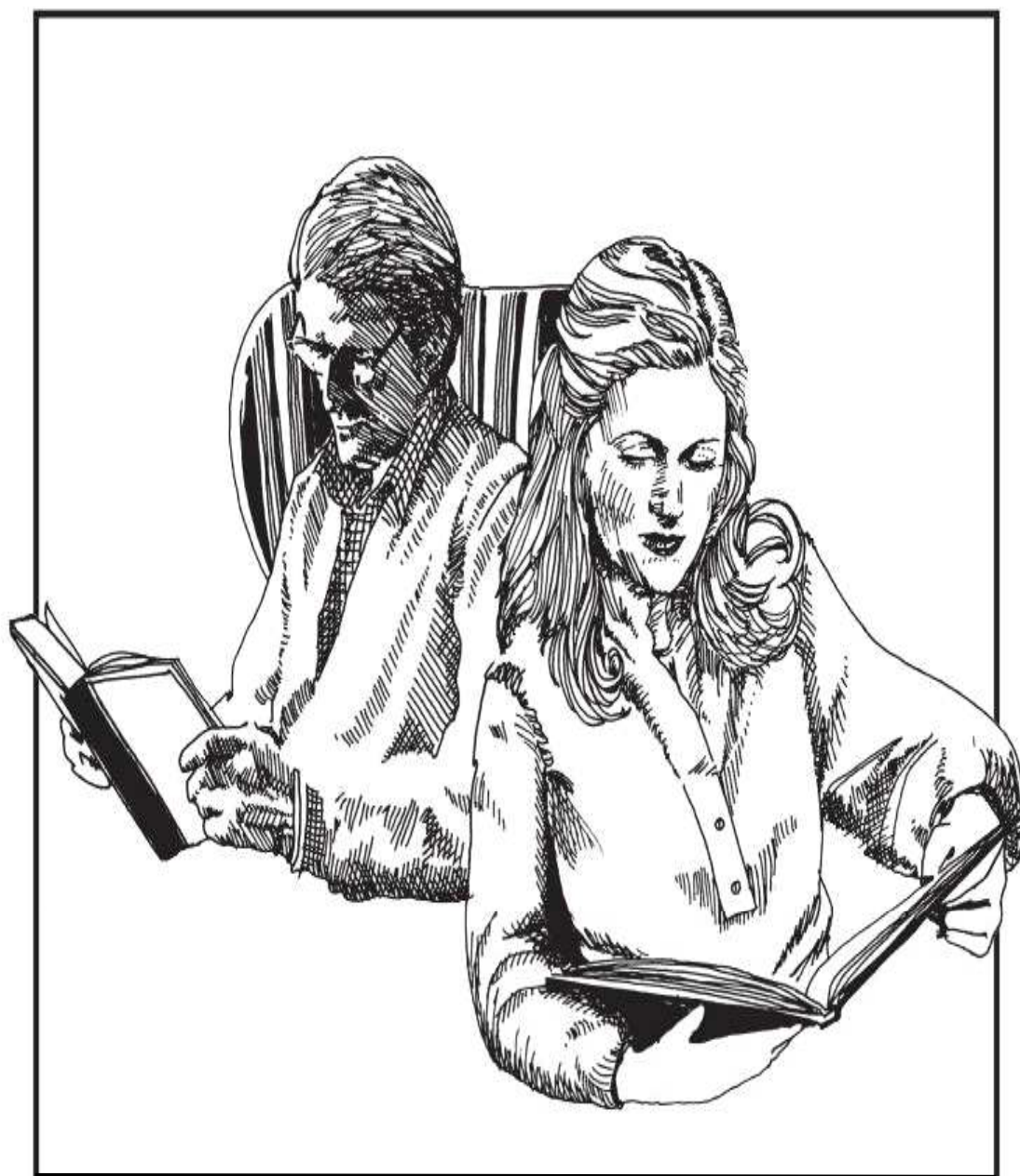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장년부 공과

제 16 권



<청장년부 공과 제 16 권>

주제: 그리스도인의 성장

| 공과 | 제목 |
|--------|--------------------------|
| 제196공과 |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
| 제197공과 | 성도의 성장 |
| 제198공과 | 성도의 성공 |
| 제199공과 | 성도의 결단 |
| 제200공과 | 오염을 피하라 |
| 제201공과 | 마귀를 다루는 법 |
| 제202공과 |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라 |
| 제203공과 | 자원해서 섬김 |
| 제204공과 | 개인적인 시련들 |
| 제205공과 | 스트레스 처리 |
| 제206공과 |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
| 제207공과 | 자아훈련(자아통제) |
| 제208공과 | 결과를 내다보라 |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삶의 문제들과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실천했던 결과입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훈이 가치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면한 일상적인 생활에 성경말씀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16권을 공부하면서 배우게 될 핵심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서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앞에 늘 서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발전과 성장에 필요한 방법과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훈을 기초로 우리는 의사결정,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육체적이고 영적인 오염을 피하는 것, 자기 훈련,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 등 구체적인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배울 것입니다.

16권은 학생들의 행동과 선택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 결정짓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이번 분기의 목표는 학생들이 바울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로마서 8:37)’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196공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성경본문: 요한복음 15:1-9 ; 에베소서 3:14-21

요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4)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이셨다.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 오늘본문인 에베소서의 초점도 이를 중요시한 것이다. 바울에게 있어 성도의 삶의 본질이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천국 소망의 기초이기도 하다! 바울은 이를 “영광의 소망이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라고 표현했다.

1.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23 ; 사도행전 3:19 ; 요한계시록 3:20 을 참조하라.

2.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요한복음 8: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계속(흠정역 성경) 거하면 ,,,, 되고”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의 본문문맥 속에서 “계속” 이란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보라.

3.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일을 “계속”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여주심으로 오게 되는 축복들을 열거하여 보라.

요한복음 14:27

요한복음 15:11

사도행전 1:8

요한일서 5:14,15

4. 바울과 요한은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친교관계”로 나타내고 있다(고전 1:9 ; 요일 1:3). 당신은 성도간의 친교를 어떻게 보는가?

5. 그런데 어떤 경우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심을 느낄 때도 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고후 5:7, 히 13:5)

6. 마태복음 18:20절과 디모데후서 4:14-17절 사이에 나타나는 상황은 서로 다르다. 그럼에도 두 곳 다 주님이 계셨다. 그 두 곳의 상황을 묘사해 보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적어보라.

7.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다음의 성구를 찾아보고 각 구절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설명해 보라.

시편 46:1

이사야 43:2

마가복음 13:11

히브리서 4:15,16

8.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들을 설명해 보라(행 4:13, 5:1, 13:33)

9. 복음을 확장키 위하여 제자들은 온 세상 각처로 가야만 하였다.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10.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성도에게는 장래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요 14:3 ; 고전 13:12 ; 살전 4:17 ; 요일 3:2).

해 답

1. 먼저 회개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 들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 이렇게 거듭난 후,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순종하여 이를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2. 먼저 요 8:31-37절을 읽으라.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아래 그 말씀을 믿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었으며 계속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지속이 필요하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치 않게 된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로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요 15:16). 이렇게 계속 말씀을 순종한 자들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으나(에녹, 노아, 욥, 다니엘 등), 시작은 잘했어도 말씀 안에 계속 행치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셨다(사울 왕, 아사 왕 등).

3. 상기 구절들엔 “평화, 기쁨, 성령의 능력, 기도응답” 등이 약속되어 있다. 평화, 기쁨은 온 세상이 온 맘으로 구하지만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는 것들이다.

4. “친교”란 “상대를 보거나 그 목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즐거운 상호간의 애정”을 의미한다. 성도란 이런 친교를 주님과 나누는 자이다. 또 성부 하나님과도 그러한 친교를 나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범죄 등)을 하지 않을 때에 한해서다. 성경은 이런 친교를 성도 간에도 하라고 권고한다. 그리하자면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고전 1:10 ; 요일 1:3,7).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면 주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 이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친교를 향유케 된다.

5.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죄를 택함으로 믿음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다.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6.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 중에 있을 때나 혹은 무리로부터 버림받고 홀로 있을 때나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 주신다. 예수님은 신자의 심령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시련을 당할 적에 예배처소의 시공간적 제약들을 안 받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신다.

7. 차례로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 주겠노라”, “환난과 위협의 때에 보호하여 주겠노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주겠노라”,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겠노라”이다. 이 약속들의 특징은 자기 백성이 도움이 필요한 때엔 시공간적인 경우를 초월해서 범사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어떤 환난이나 위기나 궁핍함도 다 이길 수가 있다.

8. 그들은 친교를 통해 하나 됨과 격려와 영감을 느끼고 얻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 신앙의 승리들을 얻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에 놀라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제자들을 반대한 그들도 제자들의 행한 일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예나 이제나 항상 똑같이 나타난다.

9. 하나님은 핍박 통해 제자들을 각처로 흩어 그들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 우린 복음전파를 위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상의 삶을 통하여 복음전파를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핍박이나 환난을 주시어 복음을 전하도록 강제하실지 모른다.

10. 우리는 장래 그와 같이 될 것이다. 그땐 직접 얼굴로 대면하여 뵈을 것이며 그것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제197공과 성도의 성장

성경본문: 베드로후서 1:1-11, 3:17,18

사무엘상: 2:26, 3:1-21

요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1,2)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의 나라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고 결정할 때마다 이 약속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평강과 은혜를 더하실 때마다, 그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덕들도 더욱 자라게 해 주실 것이다. 은혜 중에 성장하여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도 실상은 이런 일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적인 목표를 이룸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

1.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은혜 중에 자라감”에 관하여 쓰고 있다. 영적 성장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2. 거듭난 자들의 마음속에는 베드로후서 1:2절에 언급된 두 가지가 있게 된다. 그것들은 무엇인가? 또 이 둘은 영적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롬 5:1).
3.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디에다 우리 믿음을 고정시켜 놓아야 하는가?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히 12:1-2)
4.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건축과 성장을 도와주신다. 오늘 본문에서 그 도움들이 무엇인지 적어보라(벧후 1:4).

5. 사도 베드로는 믿음에다 7가지 덕들을 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각각의 영적 의미를 정의하여 보라.

6.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속에 더해질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는가?

7. 만일 이런 덕들을 더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때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8. 에베소서 4:13-15절을 참고로 하여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워 보라.

해 답

1. 그것은 믿음이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은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의 서신서를 보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히 11:6).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적 성장을 이루려면 믿음이 그 출발점이다. 그리고 거듭남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고 뭐고 없는 것이다.

2. 그 둘은 은혜(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와 평강(거듭난 증거)이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롬 5:1절은 의롭다함(거듭남)을 받은 후 오게 되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시작함에 있어 토대가 되어 준다.

3. 주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항상 앙망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도, 시종일관한 예배참석, 말씀연구 등에 힘써야 한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롬 10:17). 믿음을 행사하여 헌신하고 기도함으로 성결과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도 영력을 키우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꼭 필요한 방법이다.

4. 벧후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 약속들을 믿고 그

요구조건들을 이루면, 영적 성장을 이루리라고 베드로는 확언하고 있다. 그 약속들대로 믿고 행동하자!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5. 차례대로, “의의 표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아는 지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원하여 범사에 삼가고 조심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 기다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룩한 생활”, “행동으로써 이웃에게 사랑을 보임”,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6. 벰후 1:8절부터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하였고 10절에서는 이런 덕들을 우리의 삶에 더하게 될 때 우리는 타락치 않게 되리라고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더하다”란 “행동화하다”, “양심적인 노력을 하다”라는 뜻이다. 이런 덕들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되풀이 실천할 때 온다. 근육을 자꾸 단련하면 강하게 되듯, 우리의 영적 체질도 이런 덕들을 되풀이 실천할 때 강하여 진다.

7. 그 결과 영적 소경이 되어 끝내는 믿음에서 실족하여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한 영적 덕들을 추구하는 일을 소홀히 함은 영적 자살행위이다. 그러나 혹시 믿음에서 실족하여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니 회개만 하면 그 잃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8. 그 목표는 개인적이며 그 진전여부를 알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급적 금번학기 기간인 3개월 동안에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을 위해 힘써 보도록 한다. 그리고 극 uf과에 대해서도 점검해 본다. 그리하면 앞으로서 긴 훈련을 위한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에도 지대하고 경건한 영향과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198공과 성도의 성공

성경본문: 역대하 26:1-15 ; 시편 37:3-11

보조성경: 딤후 4:6-8

요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성공”이란 말의 의미는 다양하다. 어떤 이는 직장, 친구, 가족이 있고 또 충분한 재산도 있어서 세상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를 성공이라 본다. 또 어떤 이는 남보다 뛰어난 미모, 재능, 지성, 육체미 등을 갖추는 것을 성공이라 본다. 요즘엔 인기, 명성, 영향력, 정치력 및 남다른 독보적인 창조력을 가져야 성공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과연 그러할까? 그런 성공은 세상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영원한 것들이다. 곧 영원치 못한 것들은 참 성공이 아니다! 솔로몬은 이생에서 온갖 분야에 성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참 성공이란 이생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발견했다(구약성경의 전도서를 읽어 보라).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들을 성공으로 보고 이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13,14)

1. 웃시야 왕이 그의 통치초기에 성공한 요인들은 무엇이었는가? 두 가지를 적어보라. 그리고 웃시야의 예를 오늘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마 7:7,8).

2. 하나님은 웃시야가 원수들을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 전쟁무기들과 많은 유익한 정보와 가축들과 포도원들을 얻게 하심으로 성공하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오늘의 우리 성도의 성공과 비교해 보라(눅 10:9 ; 엡 6:13-17 ; 빌 4:19 ; 요일 1:7).

3.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는 자들에게 순경이나 역경과는 상관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 곰, 골리앗 거인 장수를 이겼고, 또 다른 많은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한 연고였다. 이와 비슷한 당신의 이야기나 혹은 다른 이의 이야기를 적어보라.

4. 다윗은 나중에 많은 핍박으로 범죄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을 통해 다윗은 참 성공에 이르는 도움을 얻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였던가?(시 37:7-11). 또 오늘날 낙담과 실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도리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벧전 4:12,13 5:10).

5. 시편 37:3-11절 말씀은 우리 영혼과 육신에 성공을 가져오는 공식과도 같다. 그 구절들의 의미는 간단한데, 곧 사람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다.

6. 다음의 여러 항목들을 당신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열하여 보라.
항목 : 교육,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사회생활, 성경 읽고 기도하기, 운동 등.

7. 바울 사도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나?(빌 3:8-11). 그가 이를 얻었다고 한 확신은 어떤 것이었나?(딤후 4:6-8).

해 답

1.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였고, 또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같이 하면 만나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당신은 어떤 것을 성공이라고 보며, 또 그 성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참 성공을 얻고자 하는가?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서 바로 행하라. 역대하 31:21절과 시편 1:3절을 읽고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을 세상에서 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참 성공이다.

2. 하나님은 웃시야가 원수들을 이기도록 해주심같이 오늘날 우리가 마귀와 죄를 이기도록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어 이로써 하나님 자녀 아닌 자들과 구별되게 하시며, 순경이나 역경이나 무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

도 상호간의 교제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해주신다. 물질을 부요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않았어도, 이생에서 필요한 것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필요한 온갖 영적 무기들을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신약 성도들이 받는 축복과 성공은 구약성도들의 것에 비하면 더욱 영적이고도 영원한 성격의 것들이다.

3. 본 질문의 의도는 시편 37편을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고자함이다. 하나님을 매일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매일 성공할 수 있다. 세상적인 처세술로서의 신념이나 자존의 극대화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 참 성공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오는 성공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다.

4. 다윗은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 드는 사울을 하나님이 직접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랐다. 우리 역시 이대로 하면 참 성공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길이 바로 여기 있음을 보게 된다. 우리가 재난이나 시련을 크게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시련이 종식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더욱 증진될 것이고, 영적 성장도 커질 것이다. 우리는 시련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역경은 우리에게 참 성공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5. 성공에는 행동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이 없는 행동은 비천에 처하고 만다. 바울 사도는 이를 잘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같이 아니하여”(고전 9:26). 행동 방향을 설정하려면 우선순위와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삶의 방향을 잡고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게 될 것이다.

6.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항목들이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퇴보가 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른 모든 분야까지도 퇴보하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도 모세 십계명처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해서 그를 섬기는 생활이어야 한다. 죄는 항상 실패로 우릴 인도하기 때문이다.

7.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얻은 바를 이같이 진술하였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에게니라”(딤후 4:8).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후 전심으로 그 분을 좇았다. 그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사양치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다. 이로써 그는 실로 위대한 영적 성공을 거두었다.

제199공과 성도의 결단

성경본문: 사사기 6:11-40

요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신명기 30:19)

영적 문제를 당하여 바른 결정을 내림도 성도의 영적 성장에 중요하다. 중차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앞일을 내다보고서 내리는 경우란 드물다. 도리어 매일 깊은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떤 결정이든, 크고 작고 간에 그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 가게 되든지 아니면 멀어지게 되거나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

1. 기드온이 내려야 했던 결정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 (사사기 7:19-23)
2.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네 가지 근거를 적어 보라.
3.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이와 관계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을 들어가면서 적어 보라.
4. 기드온은 “양털을 바깥에다 놓았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림이 과연 바람직한가?
5.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리는 사소한 결정들에도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왜 그럴까?
6. 바른 결정을 내림에 도움을 주는 정보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정보들은

무엇인가?(시 1:1,2).

7. 당신은 매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곧 취직 문제, 학교 입학문제, 불신자와의 결혼문제, 친구 사귀는 문제, 몸에 문신을 새기는 문제 등을 한 예로 들어가면서 또 마태복음 6:33절을 참고로 해서 적어보라.

8. 당신이 과거에 했던 결정 중 중요한 것들을 회상해 보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들을 적어보라. 혹시 중요한 것을 빼먹지는 않았던가?

해 답

1. 그는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여 있음을 안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지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했다.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그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원수를 대적하러 올라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이방인의 압제아래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내리는 바른 결정과 잘못된 결정의 결과를 생각해 보라.

2.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네 가지를 보여주셨다. 먼저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으며, 기드온으로 하여금 어떤 징조를 구하게 하사 응답을 받게 하셨으며, 또한 우상 숭배자들을 이길 수 있게 섭리하셨고, 끝으로 양털의 이적을 보여 주셨다.

3.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시 40:8, 시 143:10. 잠 2:3-5, 렘 29:13, 마 12:50, 약 1:5). 하나님은 자기 뜻을 숨기시기는커녕 확실하게 알려 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바로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자 하신다.

4.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믿음의 기도행위이다. 조금

은 무리한 것 같으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진실 되게만 한다면,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기도와 신앙선배들의 조언을 듣고서 결정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5. 사소한 문제라고 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그게 심각한 문제들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여럿 있다. 팔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판 에서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달아난 요나나,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왕이 그 좋은 실례이다.

6. 가장 유익한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님과 경건한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충고가 그 다음 정보이다. 경건치도 않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과 상의하거나 그들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내리면 잘못되기 쉽다.

7. 성도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전 6:20, 10:31절을 참고하여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8. 성도는 항상 “주님이라면 이 경우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한다.

제200공과 오염을 피하라

성경본문: 디모데후서 2:19-26 ; 시편 15:1-5

참고성경: 에베소서 5:27, 딤후 3:1-5, 벧전 1:22-23

요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8)

지금 세상은 온통 오염투성이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공해, 자연공해 등등! 환경오염은 하나의 중요 관심사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오염은 그 증가율이 급속도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도덕적, 영적, 육체적 오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런 오염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중대한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곧 영혼의 영원한 상실로 나타날 것이다.

1. 고린도전서 3:1절의 진술대로 우리의 영적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무엇인가?

2. 거듭났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이다. 에베소서 5: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 안에서 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써보라.

3. 본 공과 서론에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물리적인 오염 몇이 언급되고 있다. 그 이외에 다른 오염원들을 적어보라. 그것들을 피할 방도는 없는가?

4. 오늘 본문의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란 무슨 뜻인가? 또한 사람이 어떻게 천한 그릇에서 귀한 그릇으로 변할 수 있는가?

5. “정욕”이란 “도를 넘은 지나친 욕심”이다. 성적, 탐욕, 권력욕, 명예욕, 물욕, 돈에 대한 사랑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의

정욕”에 대한 해독제가 무엇인지와 또 그것들이 해로운 이유를 적어보라 (벧전 2:11).

6. 야고보서 3:16절은 성도를 오염시키는 주범 둘을 언급하고 있다. 그 둘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피할 방도도 적어보라.

7. 디모테전서 6:10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8. 오늘 본문 시편 15편에 하늘시민이 되기 위한 자격 11가지가 나와 있다. 그것들을 찾아 적어보라.

해 답

1. 차례대로 “주께서 자기 소유를 아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이다. 앞 구절의 중요성은 디모테후서 2:16-18절에 비추어서 깨달아야 한다. 바울은 진실치 못한 이들의 더러운 말이나 오염된 말이 어떠한 각 성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집을 세우도록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신앙에 큰 힘이 된다.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시느니라”(롬 8:6). 하나님의 기초 위에 계속 머물러 있고 자 하는가? 죄의 오염을 피하도록 하라.

2. 에베소서 5:27절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거룩한 영광스런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성도가 세상의 온갖 오염(죄되고 속된 것들)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임을 나타낸다(요 17:16 참조).

3. 각종 약물, 술, 담배, 마약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을 망치고 더럽힌다(고전 3:16,17).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친구나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 가능한 그런 장소도 피해야 한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한다.

4. 차례로 “주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자”이다. 오늘 본문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천한 그릇에서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리라고 말한다. 하나님 집에는 온갖 오염원에서 자유하게 된 금, 은그릇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나 그 후부터 세상에서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해 말씀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5. 본문 말씀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한다. 사도 베드로는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싸움과 또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오염 위험성에 관해 말한다. 야고보서 1:14,15절도 정욕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으로 말미암음인데 이 욕심으로 인해 죄가 생겨 결국엔 사망이 온다”고 했다. 다음 성구들을 참조하라(롬 6:12-13, 13:14 ; 갈 5:24 ; 엡 4:22-24 ; 딤후 6:9 ; 딤후 2:12).

6. 시기와 다툼이다. 이 둘은 “경쟁심, 자기를 내세움, 질투, 자랑”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부터 온다. 약 3:16,17절은 세상 지혜와 하늘 지혜를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다. 하늘의 지혜에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맘에 가득하면 세상 것들이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한다.

7.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 악은 너무도 간교해서 못 사람들에게 참 만족을 준다고 하나 실상은 참 만족을 줄만한 것이 없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위험성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이들은 자주 시험을 받으며, 울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도 어리석은 정욕들에 떨어지고 만다. 결국에는 침륜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등을 적시에 공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를 명심해야 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되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후 4:8)고 하였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상의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8. 모든 조건들이 다 영적, 도덕적 오염과 거리가 먼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거둬난 이들의 인격과 삶에 나타나지는 것들이다. 만일 그러한 조건들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럽혀지고 오염될 것이다. 성도가 영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제201공과 마귀를 다루는 법

성경본문: 마태복음 4:1-11

참고성경: 에베소서 6:1-18

요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7)

마귀는 이 세상 어두움의 왕으로서 실존한다. 마귀는 하나님과 다투며, 하나님 백성과 다툰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마귀와는 비할 데 없이 높으시고 절대적인 권능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굳세게 의지해야 한다. 실상 마귀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4).

1. 마귀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죄 짓도록 부추겨 왔다. 그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도 세상 거민들을 잠깐 시험할 것이다. 그 책략은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씨 먹었던 것과 비슷할 것이다. 그것을 적어보라(창 3:4-5 ; 고후 11:3 ; 딤후 2:14 ; 계 20:7,8).

2. 마귀가 하와를 유혹한 수법(창 3:1,4)은 광야에서 예수께 했던 그것과 비슷하다. 그것을 적어보라.

3.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가?

고린도후서 11:14

데살로니가전서 3:5

베드로전서 5:8

요한계시록 12:10

4.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것들은 조건적이다. 곧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 다음 성구들을 통해 우리 쪽의 조건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라.

에베소서 6:11

야고보서 1:12

베드로전서 5:8-10

5.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떤 영적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누가복음 10:19, 20절과 요한계시록 12:11절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거론하고 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도 함께 적어보라.

6. 고린도후서 2:11절은 신자가 마귀의 꾀계를 알고 주의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시련, 유혹, 시험, 이런 저런 덕스럽지 못한 생각 등이 하나님 혹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약 1:13).

7.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임금으로써(엡 2:2), 그의 통치 영역은 영들에 관한 영역이지 보이는 혈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엡 6:12). 사람의 영혼에 관한 하나님과 마귀와의 논쟁이 나오는 구약성경 율기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율 1:7-10, 2:3-10).

8.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마 28:18). 예수님은 마귀가 도전할 때마다 물리치셨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부활하심으로써 이기셨다. 우리도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영력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당신은 이를 확신하며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해 답

1. “기만”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진리를 곡해시켜 거짓 것을 믿게 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말한다. 지금도 마귀는 신자를 기만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지혜를 구해야 한다.

2.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혹하였고, 하와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의심하도록 유혹하여 주님의 신성에 도전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오도하였다. 하와와 예수님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와는 넘어졌고 예수님은 세 번 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다.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 우리의 승리비결도 바로 그와 같다.

3. 마귀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낸다. 지금 주변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의 사자로서 역사하고 있다(고후 11:15). 종교방송이나 종교서적들을 조심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설교나 교훈이나 글들은 다 마귀적이다. 마귀는 신자들이 인간욕심을 좇도록 부추긴다. 이런 면에서 그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시험한다. 예수님이 금식 후 배가 고프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시험한 것이 그 좋은 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시험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틈도 마귀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마귀는 형제들을 참소한다.

4. 차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마귀의 온갖 화살들에 맞서리라”, “시험을 참고 견디어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근신하고 깨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힘과 권능으로 강해지고자 바라는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보라!

5.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 생명책에 녹명되는 것과 모든 이들 앞에서 인격과 생활로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다. 또한 마귀를 쫓아내려면 진리에 대한 영적 용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성경말씀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길로만 가고자 하는 의로운 결단 등이 필요하다.

6. 악한 생각, 의심, 돌연히 엄습하는 정서적인 우울감, 낙심, 좌절감, 불안, 염려, 걱정, 자기연민 등은 크게 보면 다 마귀가 역사한 결과로 오는 것들이다. 우리 성도의 마음에 혼란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다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고전 14:33)

7. 하나님은 욥의 신실성을 잘 아셨기에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은 하셨으나, 어느 선을 넘어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에 마귀도 그 이상은 욥에게 대해서 속수무책이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미리 마련하여 놓으신다(고전 10:13). 마귀의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은 건져내 주신다(시 34:19).

8. 요한일서 4:4절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마귀를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마지막에 불과 유향 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계 20:10)

제202공과 군중심리에 이끌리지 말라!

성경본문: 민수기 13:17-33, 14:22-24

보조성경: 마태복음 16:24-27, 로마서 12:1-2

요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19)

12 정탐꾼의 보고로 인해 이스라엘의 60만 장정들은 큰 혼란에 처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꼬?” 이는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당면하여온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 역시 선악 간에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하는 그런 도전에 직면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경우처럼 너무도 비극적일 때가 많다.

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랐더라면, 그들의 역사는 정반대가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바르지 못한 결정을 한 무리를 따르면 그 결과가 이처럼 엉뚱해진다.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 선과 악 중에서 선을 택하여 나가기란 항상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주변의 압력이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만일 12 정탐꾼의 보고현장에 당신이 있었다면 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잘못된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3. 열 정탐꾼은 “그 땅은 우리 힘으로 취할 수 없다!” 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가 있노라” 고 보고했다. 결국 이 두 사람만이 그 믿음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 자손이 열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로 혼란에 처해 잘못된 길을 가자 어떤 심정이었을까? 지금도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두 정탐꾼과 같이 의의 편에 서야 한다. 일례로 학교에서 모두가 진화론을 믿을지라도 진실한 기독교학생은 하나님의 창조설을

끝까지 고수하고 나가야 한다. 그로 인해 조롱과 비난을 당할지라도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들어보고 그때 당했던 어려움을 진솔하게 적어보라.

5. 이러한 비슷한 시험들을 당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경상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4:13절을 읽어본 후 이 구절이 주는 도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라.

6. 요한일서 2:15-17절의 “세상”이란 단어를 정의하여 보라. 그리고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 때 오게 되는 그 결과들은 무엇인가?

7.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을 굳게 세우기 위한 영적 힘은 어디서 오는가?(시 27:1 ; 사 40:29-31).

8. 주변 사람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표준대로 강력하게 나아간 성경상의 인물 하나를 들어보라.

해 답

1. 그들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서도 뒤돌아서야만 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으로 들어갈 마지막 기회였다. 불신앙의 종말까지 가고만 것이었다. 영생과 영벌, 양자 중 한쪽을 끝까지 가고야 만 것이다.

2. 대개 믿음으로 냉정히 생각한 후 살피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꼼꼼하게 살피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서 너희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자손은 불리한 현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바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군중심리에 휩쓸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불신앙의 길로 가고 말았다.

3. 영적 문제를 판단하여 결정할 때 반대하는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진리의 입장에서 의의 길만을 고수하고 나가야 한다.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만 가면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설사 이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이나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들은 영원에 비하면 잠시잠깐이고 경미하며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4. 성경상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따르려면 진리에 대한 용기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한다.

5.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현실적이고, 현시적이며 우리에게 유익하다. 주변이 온통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뿐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만 의지하면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랴?”(롬 8:31).

6. 그리스도의 대의에 방해되는 땅엿 것들을 뜻한다.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삶속에는 세상이 배척하는 신앙,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하심 등이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적 표준을 고수하며 사는 삶은 세상과의 분리를 요구한다. 이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요한복음 5:18,19절은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다고 했다. 그러므로 세상의 멸시와 미움이 쏟아지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사 위로하여 주심에서 힘을 얻도록 하자.(단3:24-25)

7. 선을 행하려면 선악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양망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할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으로 정결해지고 충만해져서 영력이 강하여진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이고 간에 기꺼이 하고자 하게 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 힘의 원천이심을 깨달았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같은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엡 3:16).

8. 성경 상에 중도 변절자들도 있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진리의 표준을 고수한 자들도 있다. 이들은 주변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고 오로지 뜻대만을 향하여 나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시 4:3).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행 26장 참조).

제203공과 자원해서 섬김

성경본문: 사도행전 26:1-20

보조성경: 요한복음 21:15-17

요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यो” (이사야 1:19)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전도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는 자기 일을 끝까지 계속했다. 그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까지 자신의 회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간증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변화와 헌신과 희생의 표본이 될 만한 아름다운 실례였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에 화답해서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기쁨으로 수고하고 이로써 못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장차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1. 바울은 왕 앞에서 이같이 간증했다. “이전의 내 삶의 목적은 예수의 제자들을 옥에 잡아넣고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난 그들에 대해 살기등등 하였지요. 그러던 내가 한 순간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을 그같이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는가? 또 그가 것처럼 왕 앞에서 간증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행 9장 참조).

2. “굴복하다” (항복하다)란 단어는 “자기주장을 단념하다, 혹은 다른 이에게 복종하다”라는 뜻이다. 이 단어와 하나님에 대한 자원하여 섬김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보라.

3.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성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나타나 있다. 로마서 11:29절과 고린도전서 9:16,17절을 읽고 이들 구절의 요점을 적어보라.

4. 오늘본문인 사도행전 26:16절에 바울이 부르심 받은 목적의 일부가 “증거 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해야 하는가?(행 1:8).

5.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각처로 전도 나간 제자들은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 받은 어린양 같은 자신들을 보게 된 것이다. 의식주를 갖고 다니지도 못했고, 누가 자기네를 환영해 주겠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가야만 했던가?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던가?(눅 10:1,17, 22:35).

6.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섬기는 것보다 낫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세상 사람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니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도록 하시오!” 라고 외친다. 그러나 이는 마귀술수이다. 시편 40:8절에 주님을 섬길 때 늘 지녀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 주요단어가 하나 있다. 그 단어를 찾아 적고 적용해 보라. 그 반대되는 태도에 대해서도 묘사해 보라.

7. 때로는 복음 전파할 필요성이 크지만 그 범위가 너무 광범하여 속수무책인 것 같은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의 전도책임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에게 특별한 일 하나씩을 하라고만 하셨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온전한 맡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잠 3:5,6절 참조).

8. 세상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부한 자들을 섬기는 것을 본다. 그러나 마태복음 23:11절에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씀으로 참된 위대함의 모습을 묘사해 보라.

해 답

1.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다. 그 후 그는 이런 복음을 누구에게든지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왕에게 증거 한 것이다.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섬기려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자원봉사의 가장 기본 되는 필요조건이다.

2. 앞 문항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자원하여 섬기려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단계이다. 그러나 하나님

을 온전히 섬기려면 이 단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포기하고 버렸던 것들을 열거해 보라.

3.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다. 롬 11:29절은 이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라고 했다. 이는 그것이 설령 아무런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속되어지리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르심을 신중히 받아 순종해야 하며, 결코 하나님을 섭섭케 해선 안 된다. 고전 9:16,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을 말한다. 자원해서 순종하고 충성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4. 그것은 성령세례이다.(행 1:8)

5.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여야 했다. 그같이 했을 때, 그들은 빈손으로 갔으나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다. 그들은 이런 체험으로 인하여 돌아왔을 때,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일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굴복 하더이다”라고 보고했다.

6. 그 단어는 “기쁨”이다 온전한 헌신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이는 주님 섬기는 것을 하나의 크나큰 특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하는 예배나 봉사는 도리어 불평과 짜증과 낙담과 영적 침체를 가져온다. 여기서 당신이 주님을 섬기는 이유와 목적을 날마다 점검하고 분명히 하기를 바란다. 그런 후 매일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 특권을 향유하기를 바란다.

7. 범사에 우리 자신의 생각과 힘과 재주를 의지하려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조심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잘못 가기가 쉽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길로 빗나가기 쉽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목사님의 설교에 귀 기울이며, 경건한 신앙 선배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의 모본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겼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

제204공과 개인적인 시련들

성경본문: 창세기 37:3-26 ; 시편 105:16--22 ; 베드로전서 4:12-19

요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들이 싹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울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믿음에 거하여 있을 것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행 14:22).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환란을 이겨 낼만한 힘과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 오늘 공과를 통해 우리는 요셉이 개인적으로 많은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함께 하사 역사하셨는가를 보게 된다. 요셉의 경우는 지금껏 많은 성도들의 한 귀감이 되어 왔다.

1. 창세기 37:3-26절 가운데서 요셉이 당한 고난들을 열거하여 보라.

2. 요셉이 당한 환란들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가 엿보이는 것들이다. 이는 오늘의 우리와도 비슷하다. 성경말씀은 우리와 “다른 이”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성구를 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적어보라. 그래서 대인관계의 갈등이나 충돌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자!

로마서 12:10

로마서 12:14

갈라디아서 5:14

갈라디아서 6:1

골로새서 3:13

3. 아버지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 고 하였을 때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요셉은 훌륭한 대답을 했다. 그것이 왜 훌륭한가?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4. 창세기 37:15절에서 요셉이 또 다른 시련에 봉착한 것을 보게 된다. 그

게 무엇인가? 또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5. 창세기 37:19,20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을 모멸하고 있다. 우리도 비슷한 경우를 당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 그 결과는 어떠한가?(마 5:11,12 ; 뱀전 2:19,20).

6.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지혜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 시편 105:16,17절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근본이유를 설명하여 보라.

7. 히브리서 12:11절에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 견디어야만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을 쓴 후 그것의 유익을 설명해 보라.

8. 베드로전서 4:19절에는 이 교훈을 받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와 또 그것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보라.

해 답

1. 요셉은 그 아비로부터 받은 총애와 그가 낳은 가족과 관련된 꿈들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았다. 시기는 증오로 변했고, 형들은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그때 요셉은 죽지는 않았으나 결국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2. 차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양값을 하지마라, 사랑을 보이라, 온유하라, 오래 참고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대로 다른 이를 대하면 시험이나 아픔이 경감 되거나 없어지든지, 아예 생겨나지도 않을 것이다.

3. 요셉은 “내가 그러하겠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는 그가 아무 불평이나이의 없이 절대 복종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처한 당시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두말없이 그는 순종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태도이다.

참된 순종이란 이런 것이다.

4. 그는 길을 잃고서 방황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도움을 입어 형들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을 알 수 있었다. 4번 문항의 질문의 요점은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는 해결방법이 있으시다”는 것이며, 또한 “그 해결방법도 무한하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외적인 방법들로써 문제 해결을 보여 주신다. 그 실례로 기드온의 향아리, 헷불, 나팔과 사렙다 과부의 기름 불어남과 바울과 실라가 갇힌 옥터를 지진으로 흔들어 버리신 것들이다.

5. 오직 기쁜 마음으로 참고 견디어야 한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를 당하셨으나 참고 견디셨다. 우리도 이같이 하여야 한다.

6. 요셉이 남은 가족들에 앞서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같이 애굽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형들의 손에 죽지 않도록 구해내셨고, 애굽으로 안전하게 내려가게 하사 그로 하여금 7년간의 기근 시에 그 가족들을 구하도록 준비시키셨다. 요셉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있었을까? 우리도 당장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7. 시련은 때로는 징계의 모습으로 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결국은 “의의 화평한 열매”라는 유익을 가져 온다.

8.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았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시련이어야 한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문제해결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요일 3:20,21).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든 면에서 그 받은 시련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

제205공과 스트레스 처리

성경본문: 열왕기상 18:17-46

보조성경: 다니엘 3:8-30, 뱀전 2:19-21

요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2)

신실한 신앙의 영웅들은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다른가?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한다(약 5:17). 엘리야를 통해 우리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

1. 엘리야가 처했던 스트레스 상황 몇 가지와 그 처리에 대해 적어보라(왕상 17:1,3,7,17 . 18:17-24).

2. 3년 반 동안의 가뭄 끝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왕상 18:1) 또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그 답답한 상황을 처리하였는가?

3. 세 히브리 소년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행동에는 어떤 도덕적 속성이 들어 있는가?(단 3:16-18)

4.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거짓 고소를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고로 우리와는 달리 그 느끼신 스트레스나 고통의 정도가 경감되었던가?(뱀전 2:21-23 ; 히 4:15).

5.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범하는 잘못으로 비난받은 후 그 잘못을 깨닫고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가? 잘, 잘못을 떠나 비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가?(뱀전 2:18.20).

6. 우리 삶속에 갈등과 긴장을 몰고 오는 것들을 적어보라.

7. 성도의 스트레스 처리법과 비교하여 불신자들의 스트레스 처리법을 써 보라.

8.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짓누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마 6:25 ; 빌 4:6,7 ; 뱀전 5:7).

9. 삶의 위기와 시련에 처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로 대처하여야 하는가?

10. 스트레스에 굴복하면 그 결과 육체적 병에 걸리거나 쇠약하게 된다. 빌립보서 4:7,8절은 성도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억압과 긴장을 당할 때 극복할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억압과 긴장의 여러 상황을 몇 가지 쓴 후 그 경감책들도 기록해 보라.

해 답

1. 그는 왕을 만나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리라는 별로 좋지도 않은 사실을 통고하여야 했다. 그나마 그 후에는 그 자신이 마시던 물마저 떨어졌으며, 자기를 선대하던 여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곤란에 처하게 되었으며, 자기 생명을 찾던 왕을 다시 만나야 하였고,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 등에 부딪쳐야 했다. 엘리야는 이 모두를 하나님을 순복하여 기다림으로서 해결하였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그를 도와 주셨다.

2. 하나님은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엘리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갈멜 산상으로 가서 일곱 번 기도하였다. 기도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었고 이어서 큰 비가 내렸다. 거듭 기도하였음에도 일곱 번까지 아무런 기도응답의 증거도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계속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 땀으로써 그러한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3.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용기와 진리만을 좇겠다는 결사각오의 결단이다. 평소에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를 모르다가도 위기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보면 알 수 있게 된다. 세 소년은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었다. 설사 구해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나중에 사자 굴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경우도 이와 같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다 이적적으로 구하여 주셨다. 오늘 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4. 예수님은 맞서 싸우시거나 보복치 아니하시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셨다(마 5:39). 그가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의 불같은 시련에 비할 바가 아니시며, 따라서 그 고통의 정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5.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에게는 모든 일에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좇으라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6. 어떤 이는 러시아워 때의 교통 혼잡이나 슈퍼마켓에서의 줄서기 같은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보다는 시련이나 곤경 같은 보다 실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라.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 사이나 형제들 사이에서, 어른들은 실업이나 돈 문제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무슨 스트레스든지 이 세상에선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하면 이길 수는 있다.

7. 불신자들은 진정제, 마약과 약물복용, 환각제 복용, 혹은 자살 따위로 스트레스를 처리하려 한다. 성도는 항상 그 생각을 주님께 둬서 혹은 늘 기도 중에 평안을 찾음으로 갈등이나 긴장을 해소한다(시 26:3).

8.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9. 절대로 인내와 자제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주님을 의뢰하여 그 힘을 간구하면 된다.

10. 오직 하나님의 평강만이 갈등의 경감책(해소책)이다.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분의 평강을 주신다. 이 평강은 염려, 걱정, 근심의 반대이다.

제206공과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

성경본문: 누가복음 19:12-28

보조성경: 역대상 29:1-17

요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10)

오늘 본문에는 먼 나라에 갔다가 왕이 되어 돌아올 귀인에 관한 비유가 나온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이다. 곧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직전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일주일 못된 시기에 주신 교훈이었다. 그 교훈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실 것과 그 후의 구령사업을 그 제자들이 수행해야 할 것과 그가 다시 오실 것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함이었다. 오늘 공과의 주제도 바로 제자들의 이 청지기적인 사명과 관련된 것이다.

1. “귀인”이란 “혈통적으로 고귀한 사람”을 뜻한다. 이 비유 속에서 그 단어는 누구를 뜻하는가?(히 12:2)

2. “종”이란 단어는 “노예”, “왕의 노복”을 뜻하는 헬라어 “둘로스”에서 온 것이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에서 이 헬라어는 종종 “자신을 굽혀 타인의 뜻이나 지배에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의 성경본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종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3. 귀인에게는 열 종들이 있었다. 종마다 한 파운드(성경의 “열 드나”)씩 받았다. 이는 은사나 달란트를 의미하는데, 그 목록을 적어 보라(고전 12:4-11, 28절 참조).

4. 귀인이 열 종들에게 당부한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였다. 그 뜻을 설명해 보라.

5. 누가복음 19:14절과 27절에 나오는 “백성”과 “원수”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6. 누가복음 19:15절에는 귀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불러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조사했다고 했다. 여기서 장사하여 남긴 “이득”이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주님을 섬기면서 체험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라.

7. 누가복음 19:20-26절에는 다른 한 종과 그의 잘못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그 잘못을 적은 후 그 뜻을 해석해 보라.

8. 누가복음 19:17절에서는 귀인은 열 브나를 남긴 종에게 “잘했도다 착한 종아” 라고 칭찬하였다.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동은 어떠하여야 하는가? 그 뜻을 아래에 기록해보라.

해 답

1.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귀인은 어떤 나라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신 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는 그 분이 다시 오실 것을 확고고대하고 있다(행 1:11).

2.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 그 주인이시오 구주이신 분의 종이 되기를 자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 분의 뜻과 주권에 전적으로 맡겨 드린 자들이다. 역자 주 “성경상의 ”종“의 개념은 주님이 몸소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스스로 선택하는 자“로서의 개념이다. 이는 강제로 노예가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우리 성도는 ”주님의 종“이지 ”노예“가 아니다.

3. 마태복음에 나오는 비유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종들마다 동일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우리 기질이나 재능에 따라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적어도 각기 한 파운드씩은 받았다. 이를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 12:7절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몸된 각 지체(성도)마다 각기 다른 은사들을 받는다. 이의 언급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다. 다스리는 은사(교회정치와 행정), 지체의 말씀의 은사(상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르치는 일), 남을 돕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적을 행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이다. 이 외에도 성경전체를 보면 중보기도의 은

사, 간증의 은사, 음악의 은사 등이 있다.

4. 헬라어로 “장사하다”의 의미는 “돈 장사나 무역을 하다”이다. 장사가 번창하면 고객이 늘게 되고 재산도 증가한다. 이처럼 성도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못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일에 전력하는 장사를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재주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그냥 놀리고 있는가?

5.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다. 유대인들은 그 분의 동족이었음에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이방인들도 모두 다 범죄하였기에 실상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못 박은 자들이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회개하여 우리는 이제 영적 유대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도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2천 년 전에 그리스도를 못 박은 자들과 같은 이들이 되는 것이다(롬 11:13-24).

6. 중보기도, 간증, 음악봉사, 전도 등으로 한 영혼을 구원한 경우 등을 말한다. 이들 각 은사는 본문의 “므나”이다. 이 은사를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그 수고의 열매가 영혼구원이라는 “이득”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일례로 “간증장사”를 잘 할수록 그 “이득”(영혼추수)은 많아질 것이다.

7. 그 종은 므나를 수건에 싸서 사용하지 않는 잘못을 범했다. 이에 귀인은 그 므나를 몰수해 버린다. 그 종은 아무 것도 내세울 게 없었고 귀인은 불쾌해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할 것도 이런 것이다. 당신의 은사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도로 잃게 될 것이다.

8.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심은 이것들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이를 깨닫고 신실히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제207공과 자아훈련(자아통제)

성경본문: 빌립보서 3:7-15

요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25:28)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거나 훈련치 아니하면,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자기훈련은 목사,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그 본향으로 삼은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한다. 그것도 날마다 해야 한다. 이는 날마다 죄와 관련된 죄된 쾌락을 버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과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자아를 쳐 복종시키는 등의 자기부정을 뜻하는 것이다.

1. 과식이 비만의 원인이듯, 영적으로도 세상일에 너무 치심하면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기 쉬운 위험이 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눅 21:34).

2.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비 그리스도인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3. 앞의 문장과 관련해서 이런 목표들에 이르는 수단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4. 바울은 왜 "뒤엎것은 잊어버리노라"고 말했는가? 이 말과 "자아훈련" "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5. 빌립보서 3:15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했다. 이 말씀은 그의 자아훈련과 희생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 뜻을 설명해 보라.

6.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며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우시리라"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

7. 변덕, 기분에 좌우되기 쉬운 신자의 상태를 묘사해 보라(엡 4:14).

8.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에도 자기훈련은 필수적이다. “자아훈련”의 개념 정리를 지금쯤 대충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설명해 보라. 그것과 영적 성장과의 필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라.

해 답

1. 죄된 쾌락은 당연히 금해야 한다. 거기다 인생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맞이할 수 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세상일에 너무 빼앗기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런 데 쏠려 둔해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헛되게 해 버릴 것이다.

2. 인간의 칭찬, 명성, 출세가 성도의 인생목표는 절대 아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날마다 지속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매일의 우리 삶의 목표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7절에서 이를 확연하게 깨달은 말을 했다. 곧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 같이 여겨 아끼지 않고 버렸다고 했다.

3. 땅의 것들을 얻으려면 육신적(죄된) 방법들이 대개 필요하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오직 신령한 방법으로만 얻어진다. 양자는 비슷한 것 같으나(목표추구의 집념에서), 실제로는 전혀 다르다. 땅의 것들을 얻으려면 영혼의 상실이라는 치명적 손실이 동반된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도리어 영혼을 구원해 준다. 하늘의 것들은 오직 회개와 믿음과 헌신으로만 얻어진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만 얻어진다.

4. 바울은 자기 인생의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서 과거의 실패나 성공에 연연해하지 않고 오직 미래의 하늘 시온성을 뜻대로 삼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힘내어 달려가고자 한 것이었다. 당신은 과거에 안주하여 과거를 먹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래(소망)에 목표를 두고서 자기를 훈련시키면서 현재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5. “완전히 이루다”의 헬라어 의미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을 뜻한다. 모

든 일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신앙이 어른의 신앙이다.

6.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15절 후반부에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고 했다. 즐겨 복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대해 주신다. 그런 자들은 신령한 생각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이다.

7. 누구나 삶의 초점, 방향, 자아통제가 없으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영향을 받기 쉽다. 그러면 결국 의심, 낙심을 잘하게 된다. 바람이 불더라도 키를 이용해서 곧장 나가면, 배에게는 바람이 도리어 유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복돼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8.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성공하려면,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등의 자아훈련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성가대원이나 관현악단이 되려면, 늘 규칙적인 발성연습과 악기연습 등의 자기훈련이 있어야 한다. 자아훈련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기도만 한다고 다 되지는 않는다. 사람편의 자기 노력도 필요하다.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노력해야만 자아훈련에 성공할 수 있다.

제208공과 결과를 내다보라

성경본문: 골로새서 3:17-25 ; 로마서 14:21 ; 고린도전서 6:12, 10:31 ; 고린도후서 5:10, 6:14 ; 데살로니가전서 5:22 ; 야고보서 4:15

요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으니라” (신명기 6:18)

우리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삶이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언행심사를 달아보고 시험하며 조사해 보면, 우리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서 살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살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1. 오늘 성경본문인 골로새서 3:17,23절에 의하면, 성도의 모든 행동 이면의 숨은 동기는 무엇인가? 또 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 주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거칠 것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얼른 제거해야 함을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런 바람직한 행동 몇을 적어보라(롬 14:21, 14:19).

3. 고린도전서 6:12절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라고 말한다. 우리의 삶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4.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들어보라(고후 6:14). 성도가 불신자와 명예를 같이 하게 될 때 그 결과는 어떠한가?

5. 데살로니가전서 5:22절 말씀은 성도가 악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또 그 방법도 열거해 보라.

6. 로마서 12:9절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고 말한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라. 또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7. “내일 일을 계획함” 과 관련하여 야고보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약 4:15) 또 그 중요성을 설명해 보라.

8. 우리 삶에 있어서 현세와 내세에서의 그 결과를 생각해 보면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고후 5:10)

해 답

1. 성도는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해야 한다. 그 분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 자신을 의지하고 일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낄 것이다. 앞의 성경본문은 성도의 언행의 기초가 예수님 이름에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성심껏 하도록 권하고 있다.

2. 서로에게 덕이 되고 교육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라.

3.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되거나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므로 죄가 아니라도 상대방에 덕이 안 되는 언행이나 취미는 조심해서 자제하든지 금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4. 불신자와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동업하는 것 등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들어보라. 성도가 전도하고자 한다면 세상과 야합하기 보다는 그들 앞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과 언행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들의 양심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은 그 백성의 경건된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법이다.

5. 성도는 죄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한다. 죄된 장소, 죄된 오락들은 가서 보거나 듣지 말고, 불신 친구들을 멀리하며 경건된 신앙 안의 친구들을 사귄 것이며, 항상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되 과장을 버릴 것이며, 무슨 일이나 무슨 말이나 책망 혹은 비난을 받지 않도록 처신하여야 하고 자신을 살피야 하겠다.

6. 저주, 악담, 욕설, 맹세, 구타, 권위(부모, 스승, 윗분들)에 대한 반항, 거짓말, 도적질, 주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기 등이다. 이것들을 피하려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런 후 날마다 음란물들을 보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고 악한 동무들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사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거나 혹은 멀리 하게 되거나 한다.

7. 그것은 “주님 뜻이면 우리가 이것 혹은 저것을 하리라”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모든 삶의 계획을 주님의 뜻 안에서 짜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반대일 경우에는 재앙이 따를 것이다.

8.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도리어 멀어지느냐는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곧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은 그 결과가 보나마나이다. 그러나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삶으로써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참으로 영광스러울 것이다. 성도는 예수님의 생각과 원리와 지혜로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인생은 행복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3)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